



문 : 암이 현대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암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사람의 몸은 약 60조나 되는 작은 세포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질서에 따라 증식하여야 하는데 암은 이와같은 증식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하고 빠르게 증식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옮겨가는 것)하며 계속하여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암을 쉽게 이해하려면 혹을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아무 필요 없는 근육이 생겨서 부풀어오는 것입니다. 이 혹중에는 필요는 없지만 해독은 끼치지 않고 어느정도 자라다가 증식을 중단하는 혹이 있고 한없이 자라면서 독소를 뿜어내고 이것이 커지면 그 중심부에 미쳐 혈액공급이 되지않아 영양이 결핍되고 노폐물이 쌓여 조직이 썩어 들어감으로 피고름이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 후자를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암이라하면 곧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현대의학은 암을 고칠수 있는 병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나타나기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증세가 없을 때 정기적인 검사로 일찍 발견이 되어야지 만약 증세가 나타

난 후에 발견하면 되며 이미 고칠수 있는 때(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고 비례하여 불치의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문 : 암의 발생원인은 무엇입니까?

답 : 지금까지 “이것이 암의 원인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실에서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발암실험을 해본 결과 바이러스, 화학물질, 방사선 등이 암을 일으킬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알려진 발암물질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보면,

불에 구운생선, 곰팡이의 대사산물, 고사리, 향료(샤프론), 사카린, 방부제(AF₂), 식용색소(버터옐로우, 아우라민, 파스트그린, 식용적색1호(판세우 13R), 로다민(적색 213호, 아질산염), 식용착향료(쿠마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암은 유전상 관계도 있다고 하며 국가나 직업에 따라 잘 걸리는 암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경조건이나 생활습관도 암발생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여 집니다.

〈조사연구부 자료 제공〉



GNP 1,000억불 시대의 개막

제5공화국 출범으로 사회안정이 이룩되자,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꿈을 펼친 결과 GNP는 80년의 세계 제 31위에서 86년에는 951억불로서 세계 20위권에 이르렀고, 87년에는 대망의 GNP 1,000억불 시대를 이룩하게 됐다.

한편, 1인당 GNP도 80년 1,589불에서 2,296불 선을 돌파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물가 실현

제5공화국이 이룩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로서,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들 수 있다.

80년도에 무려 42.2%에 달하던 물가가 82년부터 한자리물가로 안정되고 86년에는 도대물가가 마이너스 3.7%라는 기적을 낳았다.

늘어난 실질소득

80년에는 임금인상율이 23.4%이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7% 올라 실질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 4.2%였다.

81년부터 86년까지 임금은 평균 1.23% 올랐지만, 물가가 안정되어 실질소득은 연평균 5.6%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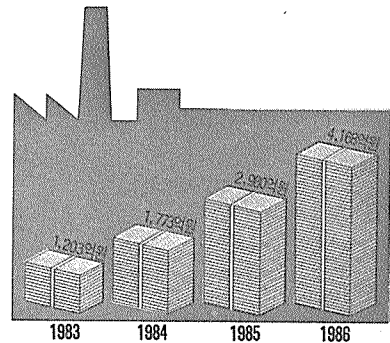
투자율을 앞서가는 놀라운 저축

물가안정과 사회안정은 경제성장을 촉진시켰고 늘어난 실질임금은 저축증가로 나타나 이제는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충족하고도 남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80년의 국민저축율은 불과 20.8%였으나 86년에는 무려 32.8%가 되어 투자율 30.2%를 앞서게 되었다.

따라서 외채의존도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유망중소기업 지원액



성장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수출제품 중 86년에 봉제 완구는 세계시장의 60%를 국산 닙시대는 일본수입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83년부터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천개 업체씩 선정하고 1조 124억원을 지원한 결과이다.